

ACC 10주년...프로그램 풍성 '내일의 아시아' 그린다

미래운동회·아시아 연출가 3부작 등 전시·공연 다채 융복합 전시 상설화·기관 브랜드 대표 공연 개발 박차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내일의 아시아, ACC가 그린다'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ACC는 개관 10주년인 만큼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 행사 등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오는 5월에는 미디어아트와 신체운동, 놀이를 융합한 'ACC 미래운동회'가 열린다. ACC는 지난해 5월 일본 야마구치 정보예술센터(YCAM)와 융·복합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ACC 미래운동회'를 기획했다. 예술기술을 활용한 '땀따먹기', 'AI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체험형 전시 프로그램으로 실제 참가자들과 운동회를 펼친다.

세계적인 사운드 아티스트 '로지 아케다' 전시도 관객을 맞는다. 로지 아케다는 ACC 개관 당시 퍼포먼스 외에도 'ACT 페스티벌 2024'의 대표 아티스트로 참가해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화려한 작품을 선사했다. 올해는 '사운드 비주얼 아트'의 발전

과 동시대 미디어 아트를 탈서구적 관점으로 재해석한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민주 평화 정신을 토대로 한 '봄의 선언'은 불평 등,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대안을 제시하는 대규모 전시로 꾸려진다. 지난해 10월 ACC는 독일 ZKM, 홍콩 M+ 뮤지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류세, 자본세 이론을 다룬 사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ACC 아시아문화박물관이 마련한 특별전 'The Next Steppe, 초원의 바람'도 관객과 만난다. 지난해 '누산타라 컬렉션' 중 725점을 토대로 해상실크로드 '몬순으로 열린 세계'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는 육로실크로드를 조망하는 중앙아시아 전시실을 개관한다. 여행을 떠나듯 초원, 유르트(몽골의 게르), 시장(바자르) 등 다양한 공간을 이동하며 중앙아시아의 문화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개관 10주년을 맞아 공연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했다. 지난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나는 광주에 없었다'가 올해 5월에도 무대에 오른다. 5·18민주화운동의 치열했던 10일간을 ACC 블랙박스 극장의 장점인 관객 참여형으로 펼친다. 올해는 관객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무대장치, 스토리 등을 개선했다.

'홍보가'를 기반으로 제작한 ACC 미디어 판소리극 '제비노정기'도 무대에 오른다. '제비노정기'는 ACC의 대표 히트작인 '드라곤강'(원작 수궁가)과 '두 개의 눈'(원작 심청가)의 뒤를 잇는 판소리 연작의 세 번째 작품이다.

아시아 연출가 3인 모듬형 공연 '아시아 연출가 3부작: Remapping Asia'도 관객들을 맞는다. 사메니즈, 리퀴드 폴리타, 사라저가는 매체들을 모티브로 한국, 대만, 태국의 연출가 3명이 각기 다른 시각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강현 전당장은 "올해는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ACC가 출범한 지 1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융복합 전시를 상설화하고 기관 브랜드 대표 공연을 개발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은 물론 지역예술인들과 소통하고 국제 교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는 올해 1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미래운동회 '땀따먹기' 장면. <ACC 제공>

트럼프 취임 첫날 '北 핵보유국' 언급 파장

김정은에 '러브콜' 스몰딜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고 지칭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구체적인 의중은 불확실하지만, 자칫 한미가 견지해왔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그(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뉴클리어 파워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했는데,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임기 첫날부터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한 게 단순히 북한이 군사적으로 핵능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한 것인지, '핵보유국'이라는 정치·외교적 함의를 인식하고 발언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간 북한이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일부에서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정치·외교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

하는 핵무기 국가(nuclear weapon state)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곳이다.

핵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공인받지 못했지만 사실상 핵을 가진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까지 포괄한 개념이다. 이들 국가는 핵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 다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이들 국가와 같은 반열의 '핵보유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더는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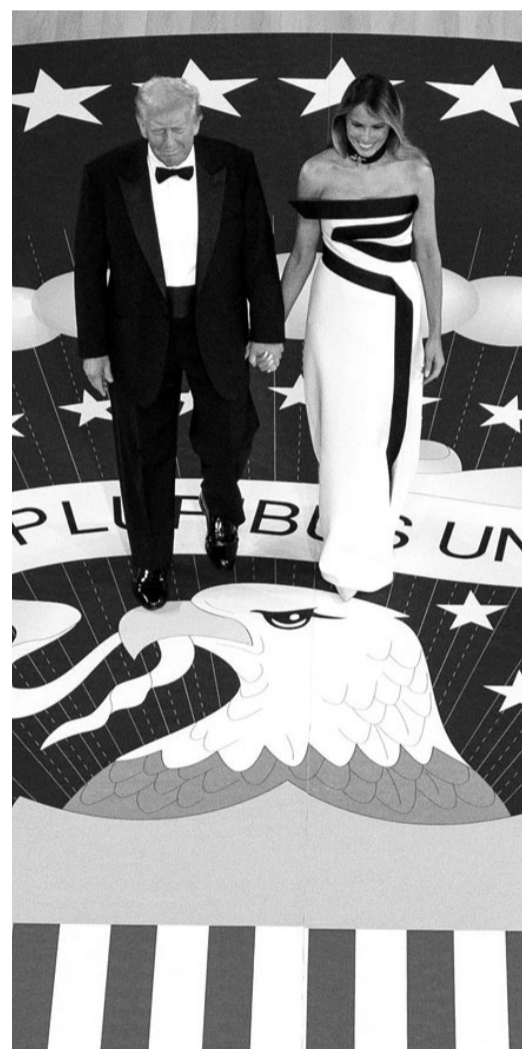
실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상원 외교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북핵과 관련, "어떤 제재도 (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서 제재 무용론으로 여겨질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과거 관계가 좋았다고 밝히는 등 '러브콜'을 보내면서 북한과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비핵화를 목표로 한 '빅딜'이 아닌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 채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만 줄이는 근축협상 등 '스몰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대미 소통 채널을 가동하는 한편 비핵화 목표를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사랑관 무도회에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국방부,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승인...사업 속도

광주와 함께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해온 대구시가 국방부로부터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21일 "대구시가 신청한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승인은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한 군공항 이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구시에 사업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 등의 보상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다.

그동안 국방부와 대구시는 2022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문화재 지표조사,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미리 준비해

왔다.

국방부는 대구시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후에는 사업계획 공고,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대구시 이행계획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2 공군기지'라고도 불리는 대구 군공항은 민간 대구국제공항과 함께 경북 군위·의성군 일대에 새로 건설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으로 이전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회대개혁 광추선언운동

▶1면에서 계속

지 교수는 "민주주의 붕괴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비상계엄 사태로 확인된 법적,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 대개혁을 거쳐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치 개혁 방안으로는 우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삽입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다불어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며, 지역균형발전·민주시민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속의·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제 권한 분산, 의회 정치 강화, 지방 분권, 지방 의회 권한 강화, 선거법 개혁을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의 강화 등 개혁안도 내놔다.

지 교수는 "이행기 정의 실현이 지연되거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한국 사회에 내란극복, 내란 옹호 차원의 강한 정치적 균열이 형성될 것"이라며 "단기적이고 정파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사회대개혁 광추선언운동은 윤석열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추비상행동,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남대·조선대 분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이 모여 만든 단체다. 현 체제에 대한 성찰을 통해 개선 과제와 의제를 발표하고 정치권에 개혁안을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 1997 태림인더스트리(현) 법인 설립
-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청장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통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매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안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조직변경공고

본 영여조합법인인 2025년 01월 21일 임시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전원일치로 "영광공비 영여조합법인"을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송촌마을"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일 익일부 터 1개월 이내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2일
영광공비 영여조합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매향로57번길 31 (매월동)
대표이사 이광성 (010-8948-1000)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양성미(650225-2XXXXXX)
- 최후주소: 광주 북구 삼정로 7, 205동 504호 (주암동, 주공아파트)

피상속인 망 양성미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추가정법원 2024년4831호로 신청하여 2025년 1월 2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1월 22일

- 상속인: 구본남(931127-1XXXXXX)
광주 남구 서문대로749번라길 7-1 (주월동)
- 신고기간: 2025. 1. 22. ~ 2025. 4. 3.
- 채권신고처: 상속인 구본남의 주소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